

NEWSLETTER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발행 | 삼육대학교간호학과 편집 | 제39대간호학과학생회

Sahmyook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contents

01 간호학과 소식 / 2면

- MVP캠프
- 스승의 날 행사
- 아마나시 현립대학교 교류
- 2016년 간호학과 학술제
- 체육대회
- 핀 수여식
- MVP PLUS CAMP
- 로마린다 간호대학교
- 점점 더 높아지는 남학생 입학정원 비중
- 삼육대 간호학과 2016학년도 입시변화

02 학생활동 소식 / 6면

- 동아리 활동
- 학생회 활동
- 인성교육팀

03 특집 : 심폐소생술 / 10면

04 대학원 소식 / 12면

05 동문회 소식 / 14면

06 간호학과 발전기금 / 15면

07 학과사무실 소식 / 16면

2016년 우리 교정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다가오는 겨울을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올 해도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소식을 담아 동문들과 예비 동문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모든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간호학과의 초석을 놓아주신 여러 선배 동문들과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후원으로 오늘의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과는 설립 당시, 학부정원 20명에서 출발하여 현재 학부정원 65명, 일반대학원 석사와 박사과정, 보건복지대학원 중앙전문간호사과정과 노인전문간호사과정, RN-BSN 과정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규모의 학과로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김일목 학과장

올해 우리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Ⅱ)에 재선정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 학과를 비롯한 5개 학과(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보건관리학과)가 연계전공(중독심리전공, 중독재활전공)으로 중독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쟁 사회의 인간성 소외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작용으로 각종 중독이 만연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중독전문가의 양성은 사회의 요구에 의한 소명이며 보건의료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학과는 간호교육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진행될 것이며 재학생과 동문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간호 분야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견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격과 품위를 갖춘 간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창의적 간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분야에 진출해 있는 동문들의 애정이 깃든 충고이며 학과발전을 위한 성원의 덕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학과발전에 대한 염원과 애정을 담은 예비동문들의 학과발전기금 약정의 전통이 세워진지 올해로 6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부를 통해 사랑을 받은 후배들이 사회에 나가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열심히 일하고 또 후배를 위해 작은 정성들을 모으는 사랑의 릴레이는 감동적인 전통으로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삼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해주시고 학과발전기금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01 간호학과 소식

1. MVP캠프



지난 2016년 2월 15~18일, 22~25일 2차례에 걸친 2016학년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MVP캠프가 진행되었다. 1차,2차로 나눠서 진행된 캠프에서 간호학과 16학번 학생들은 2차 캠프에 참여하였다. 첫날 '바람의 딸' 한비아 강사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국대떡볶이의 김가영 대표님, 그리고 삼육대학교 김성익 총장님의 특강까지 총 4번의 좋은 강연을 들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들의 강연과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각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얻었다. 프로그램 사이마다 있었던 이벤트도 신입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적극적인 참여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한 공동체훈련, 의미있는 조별 스그룹 시간 등을 통해 새로운 학우들과 만났다. 그리고 매 순서 마다 조원들과 같이 협력하며 3박 4일이라는 시간을 함께하였다. 마지막 날에 진행된 '문화의 밤' 역시 삼육대학교의 스타, 히든싱어 '김진호' 편이 우승자인 김정준 선배님의 무대를 통해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고 즐거운 노래와 화려한 불꽃놀이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MVP캠프와 각 조별 리더들을 통해서 학교에 대해 알아갔고 동기들과의 친분도 쌓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였다. (1학년 김근별)

2. 스승의 날 행사

지난 5월 16일 제3과학관에서 2015년 간호학과 스승의 날 행사가 열렸다. 스승의 날에는 교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모두 함께 선양하기 위해 합창, 수화 등 의미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었다. 학회와 인성 교육팀(안교)은 연합하여 무대를 꾸미고 합창과 수화를 연습하였다. 그리고 교수님께 드릴 액자와 영상준비는 모든 15학번 학우들이 함께 했다. 준비 과정에서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은 스승의 날 행사를 위해 서로 배려하면서 준비해나갔다. 또한 학우들 간의 유대감을 키울 수 있었고, 교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되새길 수 있는 되는 시간이었다. 모든 학생들이 힘을 합쳐 준비한 행사인 만큼 뜻 깊은 시간이었다. (2학년 서희선)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육목적과 목표

● 교육목적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는 지역체의 조화로운 개발과 과학적 지식에 근거된 간호학문의 연마를 바탕으로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인간과 치료적 돌봄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인류의 안녕에 기여하고 미래 세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간호인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

1. 기독교적 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한다.
2.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탐구능력을 배양한다.
3. 임상간호실무 수행능력을 형성한다.
4.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간호술의 통합적응능력을 발휘한다.
5. 의사소통능력과 협동능력을 통한 전문적 간호역량을 형성한다.
6. 글로벌 보건의료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한다.

3. 야마나시 현립대학교 교류

2016년 3월 24일과 8월 23일 삼육대학교 제 3과학관에서 삼육대 간호학과 학생들과 일본 야마나시 현립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환영식과 다과회를 가졌다. 야마나시 현립대학교 간호학과와 삼육대학교 간호학과는 국제교류를 맺고 있어서 매년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서로의 대학에 방문하며, 올해는 야마나시 현립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삼육대학교에 두 차례 방문하였다.



환영식은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소개로 시작하여 각각의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자기소개를 듣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1학기에는 환영식과 더불어 조를 나누어 게임을 하기도 했지만, 2학기에는 기후문제로 인해 야마나시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입국이 늦어져 준비한 게임은 하지 못했다. 게임을 하지 못했던 일본 학생들은 아쉬워했지만 함께 다과회를 준비하며 즐거워했다. 다과회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의 분식인 즉석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고, 그 외에도 여러 한국의 음식들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주로 영어로 의사소통했고, 이는 일본어나 한국어를 섞기도 하고 몸동작으로 표현하기도 하여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짧은 시간동안임에도 불구하고 삼육대학교 간호학과와 야마나시 현립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은 서로 친구가 되어 문화도 알아가고 작게는 간호학과와 교류하는 모습부터 크게는 간호사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배웠다. 이후의 일정동안 일본 학생들은 삼육대학교 간호학과와 다양한 병원의 현장을 견학하였고 북촌에서 한복 체험을 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은 홈스테이를 하면서 한국의 가정생활을 몸소 느끼기도 하였고, 아간지개를 한 경복궁에 가거나 남산타워를 가는 등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에도 가서 생동감 넘치는 한국을 경험하였다. 일주일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야마나시 현립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많은 사람들과 음식, 환경, 문화를 통해 한국을 접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을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각 학교 학생들이 시각을 넓히고,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4. 2016년 간호학과 학술제

2016년 10월 5일,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2016년 간호학과 학술제가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간호와 창업', '신규간호사와 병원 감염관리' 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유익한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학술제의 주요 행사인 2학년 학생들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2학년 학생들은 평소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구체화하여 발표주제로 정하고 결과를 얻는 것을 끝으로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 3부에서는 1부에 이어 '간호직 공무원'에 대한 취업특강을 들었다. 이번 학술제를 통해 간호와 관련된 좋은 강의 그리고 학생들의 논문 발표를 통해 학술적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다음은 올해 수상자 명단이다. (1학년 이윤아)



상	연구제목	연구자
대상	SNS연락 및 현대면 접촉을 통한 치료적 관계가 고등학생의 교우관계와 불안경험 정도에 미치는 영향	홍정표(책임), 김진아, 신동은, 이상철, 최태우, 황은솔
금상	저소득층 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회복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차승미(책임), 박진희, 손전옥, 송지원, 유희연, 이현정, 조서연
은상	칭찬활동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예영(책임), 김지현, 배서영, 신지수, 이정연, 최민용
동상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관, 미래의 경제적 걱정, 주관적 행복감 및 출산의지간의 관계	최수하(책임), 김가영, 김수홍, 김현솔, 송현주, 오은주, 진수빈
	가족소통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	오혜림(책임), 김영실, 김정현, 이선영, 이슬아, 이주현

5. 체육대회

지난 10월 6일 점점 서늘해져가는 날씨 속에 걱정 반 설렘 반을 가지고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과마다 연합팀을 꾸리지 않아도 출전이 가능했기에 우리 학과는 이번에 독자적으로 출전을 하였다. 아침에 일찍 여러 학년이 운동장에 과잡을 입고 웅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그날의 좋은 결과를 암시하듯 경쾌한 아침이었다. 개회식을 위해 과마다 자신들의 특색 있는 입장을 하였는데 우리 과는 주사기모양의 팻말을 들고 입장하였다. 개회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체육대회가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계주달리기가 있었는데, 간호학과에는 남학생들이 적어 경쟁력이 떨어지기에 항상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대표로 출전을 한 선수들이 정말로 잘 뛰어줬기에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여자 계주도 선수들이 정말 잘 뛰어서 덩달아 결승까지 올라갔다. 계주가 끝난 후, 다른 종목들을 구경하다보니 점심시간이 되었다. 다 같이 도시락을 기본 좋게 먹고 다른 과의 치어리딩 순회공연을 봤다. 평소에 치어리딩 연습을 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보다가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하는 것을 보니 멋있고 그들의 노력에 감탄할 따름이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발야구 결승 경기가 다가왔다. 우리과는 건축학과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의 연합팀에 맞서서 경기를 했다. 초반에는 압승을 하다가 상대팀이 어느새 점수를 따라오갈래 불안하기도 했지만



지난 학기동안 열심히 연습한 결과로 우리 선수들이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 기세를 타서 계주 달리기 결승에서 우리 과가 남녀계주 모두 2등을 하였다. 이 밖에도 장애물 달리기, 닭싸움 등의 경기를 나갔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도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었기에 즐겁게 즐길 수 있었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폐회식과 결과발표만을 앞두고 있었다. 간호학과가 전체 2등, 준우승을 하였기에 우리과 학생들 모두가 놀랐다. 열심히 뛰고 연습한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우승트로피를 받고 체육대회가 마무리 되었다. 끝까지 남아준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교수님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다. 끝나고는 잊지 않고 주변의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훌륭한 간호학과 학생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2학년 조민기)

6. 핀 수여식

2016년 10월 4일, 삼육대학교 대학교회에서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제 40,4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및 핀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작년과 다르게 2학년과 3학년의 선서식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날 헌신회에는 삼육대학교 김성익 총장이 학생들을 위한 격려사를 해주셨으며 간호학과 9명의 교수들이 2,3학년 학생들에게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담아낸 핀을 직접 달아주었다. 핀 수여식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함께 낭독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본교 교수님들과 많은 학부모님, 동문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함께 2, 3학년을 축하해 주었던 뜻 깊은 행사였다. (2학년 오영주)



7. MVP PLUS CAMP

2016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삼육대학교에서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에 걸친 'MVP PLUS CAMP'가 진행되었다. MVP PLUS CAMP는 캠프를 통해 금연,금주 예방교육을 받으며 동기들과 더욱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삼육대학교만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1학년 변은총)

교수님들과 함께 한 감동의 순간, 세상에서 하나뿐인 세족식

대학생활 중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하기 어려운 교수님들. 아직 1학년인 우리들에게 교수님과 하는 수업이 많이 없어

더더욱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세족식은 더더욱 뜻깊었던 활동 중 하나입니다. 교수님들께선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해 안면도까지 해주셨고 직접 학과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개개인을 위한 기도를 해주셨다. 학생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다. 교수님들도 아직 1학년 학생들을 모두 알지 못 하시지만 학생 한명한명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신 것이 아직도 많이 기억에 남는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의자에 앉은 학생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은 어느 대학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께 대학교 1학년 새내기인 간호학과 학생들은 4년의 대학생활을 위해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며 더 보람찬 시간들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보며 편지쓰기

캠프 중 기억에 남았던 활동을 하나 더 꼽자면 부모님께 편지쓰는 시간이었다. 리더분들이 학생들에게 초를 하나씩 나누어주며 모두들 숙연해질 즈음에 2명의 학생 부모님과 전화연결이 되어 편지를 낭독해주셨다. 그 이후 리더분들께선 미리 부모님께 받아놓은 편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분위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편지지를 나눠주며 부모님께 편지 쓸 시간을 주셨다. 한명 두명씩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들리고 모두들 부모님 생각에 젖어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다. 이렇게 대학생이 되어 부모님께 편지쓰고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게 너무 좋았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하게 되었다. 그저 금연,금주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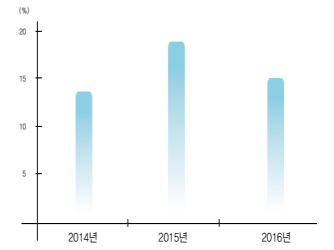
8. 로마린다 간호대학교

2016년 11월 9일 Edelweiss Ramal 로마린다 간호대 교수가 대총회 평가위원자격으로 삼육대학교 간호학과를 방문하여 학과장과 면담하고 실습시설들을 둘러보았다.



9. 점점 더 높아지는 남학생 입학정원 비중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남학생은 2014년에는 전체 입학생 65명 중 9명으로 13.8%를 차지했으며 2015년에는 66명 중 12명으로 18.5%를 차지했다. 2016년에는 74명 중 11명으로 14.9%를 차지했다. 심야 근무 등 힘든 근무환경과 결혼 등으로 여자 간호사의 이직이 빈번한 가운데 남자 간호사는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낮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남자 간호사를 받기는 추세로 취직률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남학생들이 간호학과 진학을 선호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여성 직종'이라는 고정관념은 깨진지 오래이다. (1학년 조운)



10. 삼육대 간호학과 2016학년도 입시변화

올해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수시모집의 방식은 작년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상당한 변화를 거쳤다. 학교생활우수자 전형과 SDA특발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등급이 1개 영역 3등급(B형은 4등급)을 만족해야 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이 사라졌다. 또한 적성전형이 신설되었는데 90.17 :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시모집부분의 다군에서는 자연계, 인문계 상관 없이 20명을 모집한다. 수능영역별 반영 비율은 작년과 같은데 국어B나 수학A 또는 수학B(40%), 영어(40%), 사탐, 과탐(20%)이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B형 응시자는 취득점수의 10%를 수학영역 점수에 가산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작년엔 탐구영역에서 각각 10%씩을 반영했지만 올해엔 탐구영역중 하나만 20%를 반영한다. 또한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한국사 3등급 이상이라면 총점에서 1점을 가산한다. 간호학과 입학 정원은 작년과 같이 수시45명 정시20명이다. 작년 수시 입학 성적은 학교교과우수자 전형은 내신평균 1.52,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은 내신평균 2.37의 결과를 보였고, 정시 입학 성적은 수능평균등급 1.99 등급의 결과를 볼 수 있었다. (1학년 조운)

02 학생활동 소식

1. 동아리 활동

페이퍼 (PAPER)

페이퍼(PAPER)는 간호학과 학술 논문 동아리다. 총 44명의 학생들이 기획부, 대외 협력부, PD부 총3개의 부서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부서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아리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대외활동, 역량개발, 봉사 등의 동아리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후배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지난 3월 동아리 담당 교수님과 함께 청평으로 1박2일 MT를 다녀왔고, 5월에는 한강으로 소풍을 다녀왔다. 그 밖에도 멘토링 시간에 졸업하신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이야기와 조언을 듣는 등 선후배간의 교류가 끊어지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동아리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간호학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포스터를 제작하여 주요한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부산에서 열린 '제 3회 지역사회간호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에 관한 포스터를 발표하였고, 이번 10월에는 한국간호과학회에서 주최하는 '중개연구의 간호학 적용(Translation Research in Nursing)'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시대별 흐름에 따른 간호사의 이미지 : 한국의 주요 웹사이트 검색을 통한 콘텐츠 분석"에 관한 포스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1학년 홍기창)

그린나래

그린나래는 '그린 듯 아름다운 날개'라는 뜻으로,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봉사 정신을 기르기 위해 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봉사를 하는 동아리이다. 그린나래는 학생들이 다양한 사람의 삶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하며, 여러 활동을 통해 간호 지식과 기술들을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동안 봉사를 하고 싶었으나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학년 정주현)

〈활동내용〉

- '공릉동 노원 문화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보건교육프로그램 참여
- '쉽터 요양원'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식사보조 및 목욕봉사 참여
- '하늘품 지역아동센터'에서 중, 고등학생 교육봉사 참여
- 정기적으로 헌혈 참여
- 노원구치매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치매노인 가정방문서비스 참여
- 자원봉사를 위한 vital sign 교육
- 선배들의 멘토링 나눔
- 개인의 봉사 후기 나눔 및 친목도모



SSK

SSK는 Sahmyook Service Skill의 약자로 약 30여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봉사동아리다. 실생활에도 적용 가능한 여러 봉사기술을 익혀 직접 봉사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부터는 유 투 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청자를 받아 우쿨렐레도 배우고 있다. 매년 처음 몇 주간 동아리 부원들이 한데 어우러져 전문 외래강사에게 전문 서적과 발마사지 크림과 전용 향균제를 이용하여 강습을 받는다. 신청자에 한해 발마사지 자격증반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1학기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2015년 1학기부터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유지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발마사지뿐만 아니라 말벗이 되어 드리기, 산책시켜드리기, 식사도우미 등의 활동도 해오고 있다.



FC CARDIAC

FC CARDIAC은 삼육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로 이루어진 축구동아리다. 졸업한 선배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남학생들 간 친목을 다지며 간호학과 학생에게 필요한 체력을 기르고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성되었다. 2012년부터 공식동아리로 인정받아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1년 제1회 전국 간호 대학생 축구대회 3위, 2012년 제2회 전국 간호 대학생 축구대회 준우승, 우리 대학교에서 개최된 2013년 제3회 전국 간호 대학생 축구대회 8강으로 진출하는 저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활동 외에도 학교 내 체육대회나 S리그에 참여하고 있으며, 타 학과나 사회 축구팀과 주기적인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들로 인해 FC CARDIAC은 지금까지 큰 성장을 해왔으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 (2학년 조민기)



2. 학생회 소개

간호학과 학생회는 재무부, 학술부, 홍보부, 체육부, 핀 수여부로 총 5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재무부는 간호학과 내,외 행사인 체육대회, 스승의 날, 학술제, 수시면접도우미, 핀 수여식 등등 간호학과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 드는 모든 재정을 관리 감독하여 투명하게 일을 하는 부서이다. 학술부는 학술제와 뉴스레터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학술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취업특강과 학술회를 연다. 뉴스레터는 한 해동안의 일을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간호학과 소식지이다. 홍보부는 신입생 환영회, 스승의 날 행사, 국가고시 응원, 수시와 편입 면접 등 각종 학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담당한다. 체육부는 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하고 다년간의 체육대회 경험으로 선수들에게 종목별 규칙을 숙지시키고 경기연습을 도우며 체육대회를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핀 수여부는 간호학과 의 큰 행사중 하나인 핀수여식 행사 전체를 담당한다. 핀 수여식은 간호사가 되기 전에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교수님들께 핀을 수여받음으로써 간호사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다짐한다. 이렇게 다섯부서로 이루어진 학생회는 간호학과 발전에 힘쓰고 있다.

간호학과 월별 행사

● 1월 국가고시

1월에는 지금껏 열심히 준비해오신 4학년 선배님들이 국가고시를 치르게 된다. 이 날에 학생회에서는 선배들이 고사장에 무사히 도착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점심 도시락과 간식 및 핫 팩 등을 준비하여 응원을 한다.

● 2월 졸업식

학생회에서는 원활한 졸업식 진행을 위해 강의실을 장식하고 선배님들께 드릴 기념품을 준비한다.

신입생 orientation

학생회는 미리 신입생들의 MVP캠프 기간 중에 있는 학과별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간호학과를 소개한다.



● 5월 스승의 날

학생회에서는 인성교육 팀과 연합하여 수화과 합창을 준비한다. 1학년들이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선물도 준비하고 영상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 10월 수시 면접

2016학년 신입생 면접을 위해 학생회는 면접도우미 역할을 한다. 면접 보시는 교수님들을 위해 다과와 음료를 준비하며 고사장 준비와 수험생들의 전자기기 수거 및 안내까지 학생회에서 준비한다.

간호학과 학술제

학술제에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여러 강사님을 초청해 강의를 듣는다. 또한 간호학과 논문 발표대회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학생회는 학술제의 진행을 돕고 순서지와 음료를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추계 체육대회

이 날은 한 학기 넘게 고생한 학생들이 빛을 보는 날이었다. 일본어과, 화학과와 연합팀을 이루게 되었고 피구 결승까지 오르게 되었다. 결과는 2:0으로 압도적으로 우리 연합팀이 우승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고생한 친구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이 날 날씨가 좋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덥기까지 한 날씨에 응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회는 도시락을 준비하였으며 체육대회가 끝난 자리를 정리했다.



● 12월

나이팅게일 헌신회 및 핀수여식

이 행사는 간호학생들이 나이팅게일의 순고한 간호정신을 이어받아 미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책임과 긍지를 다하겠다는 간호학과의 연례행사이다. 이 날 학생회는 장소섭외부터 포스터 제작, 초청장 발부, 기념품 준비, 리셉션 준비 등 많은 준비를 하여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다.



3. 인성교육팀

인성교육이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주중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매주 셀 모임이 있어 교수님과 멘토링 모임을 갖고 때로는 인성교육팀이 준비한 특별한 순서나 목사님과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듣기도 한다.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인성교육시간이 시작되기 전 안내팀은 밝은 미소로 학생들을 맞이하였다. 동시에 음악팀은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하고 싱어송 시간이 끝나면 순서팀의 싸인과 함께 셀이나 인성교육팀이 준비한 순서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달의 한번 대강당에 가서 열린 채플도 들었다. 일년의 한번 대강당 앞에서 열린 채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호학과만의 특별한 환영인사를 하기도 하고 특창을 맡아 아름다운 합창으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아서 간호학과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또한 일 년에 한 번씩 인성교육일에 온 모든 분들을 위해 점심봉사를 하였다. 주중 채플이라는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접어들어 더 이상 1학년 친구들은 토요일에 학교에 오지 않게 되었다. 학교 측에서 전부터 학생 중심의 채플을 구상하여 이번 학기는 학과별 선택적으로 진행 되고 다음 학기부터 주중채플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채플 외에 학회와 협력하여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방학 때는 인성교육팀 임원들이 한 마음을 모아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간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1대 1로 눈높이 영어교육을 하였다. 팀을 나누어 근처 마을의 양로원을 찾아 안마를 해드리거나 혈압과 혈당을 재드리는 의료 봉사도 하였다. 앞으로는 해외봉사도 계획 중이다. 인성교육팀은 이렇게 다양한 일을 기획하고 학생들과 교수님 사이의 다리가 되기 위해 매주 한 시간 이상 모여 회의를 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한다. (2학년 이현정)



03 특집 : 심폐소생술



1.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에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심장마비와 호흡마비를 겪고 있는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응급 처치이다.

심폐소생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식 확인이 필요하다. 심정지가 의심되는 사람을 반듯이 눕힌 다음, 양쪽 어깨를 잡고 가볍게 흔들면서 큰소리로 불러서 반응을 확인한다. 둘째, 응급의료 도움을 요청한다. 의식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셋째, 119에 신고를 하고 흉부 압박을 시작한다. 환자가 단단한 면에 누워있게 한 뒤, 양측 젖꼭지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 중앙에 손꿈치 부분을 이용하여 가슴이 적어도 5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환자의 몸에 수직이 되도록 1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시행한다. 목격자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흉부 압박만 시행하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30회의 흉부압박 후 2회의 인공호흡을 한 주기로 하여 5회 주기를 시행한다. 2분 후 환자의 상태를 다시 평가한다. 지속적으로 반응이 없으면 다시 흉부압박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자동 체외 제세동기를 사용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시술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은 평범한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일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방법을 잘 숙지해둬야 한다. (1학년 조송희)



2. 특집기사



심폐소생술을 사용하여 직접 시민을 구한 사람도 있다. 바로 간호학과의 홍예지 학우이다. 홍예지 학우는 18일 오전 6시30분께 쌍문역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려고 하다가 열차 내 있던 전모(49)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전씨는 열차가 쌍문역에 진입하던 중 쓰러졌고,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다. 이를 본 홍예지 학우는 열차에 뛰어 들어가 망설임 없이 전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전씨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상태였지만, 홍예지 학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인공호흡을 했다. 홍예지 학우는 15분 뒤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고, 전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그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육대는 홍예지 학우의 선행이 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다른 학생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판단해 홍예지 학우를 장학생으로 선발, 장학증서와 한 학기 등록금 전액인 395만9천원을 수여한다고 하였으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이 필요한 다른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전액을 기부하였다. 또한 홍예지 학우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서울메트로에서는 홍예지 학우에게 감사패와 포상금을 전달하였다.

Q1 이번 일을 계기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A. 심폐소생술은 전 국민에게 보급되어야 하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심폐 소생술과 인공호흡법 등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만 알아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3배나 끌어올릴 수 있어요. 심폐소생술은 어렵고,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꾸준히 관심만 기울이면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든 국민이 꼭 아시면 좋겠어요.

Q2 간호학도이자 응급처치법 강사로서 응급처치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 인가요?

A. 응급환자 발생 시 처리 순서인 3C(Check, Call, Care)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현장조사와 신고, 응급처치 및 도움인데요. 여기에 골든타임을 엄수하고, 정확한 자세로 처치하고, 침착 하게 대응한다면 환자의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겠죠.

Q3 마지막으로 응급처치법 강사로 활동하면서 목표나 다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에게 응급처치 법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문 강사이자 응급전문간호사로 성장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04 대학원 소식

대학원 소개

간호학과의 대학원 프로그램은 일반대학원과 보건복지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다. 일반대학원은 1996년에 석사과정이 개설되었고, 2011년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보건복지대학원 임상 전문 간호학과는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 간호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현재 노인전문간호, 중앙전문간호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본 대학원은 장학장려제도를 운영하여 1학기 대학원생 모두 등록금의 30%를 장학금으로 주고 있다.

2016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명단 및 학위논문제목

번호	이름	논문제목
1	임영숙	PA 남자간호사의 직업정체성 ; 혼합적 연구 적용
2	김숙경	혈액투석환자의 혈관접근로 시술중 음악요법이 불안과 통증에 미치는 효과
3	송은정	간호일터영성과 간호업무성과의 관계에서 직무만족과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4	여재현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

2016년 가을학기 박사학위 취득자 명단 및 학위논문제목

번호	이름	논문제목
1	김선홍	남성 척추손상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2	이정란	유방암 환자의 항암화학요법 관련 인지기능 변화의 구조모형
3	한혜울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유아 어머니의 돌봄수행 모형
4	황정희	만성 조현병 환자의 정서지능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논문계획서 및 공개 발표

2016년 1학기, 2학기 2회에 걸쳐 논문계획서 발표 및 논문 공개 발표를 하였다.

학기	이름	과정	논문	지도교수
1학기	논문 계획서 발표 (4/26)	김미영	일대원 석사 서울시 거리 노숙인 폐결핵 감염률	신성례
		조은희	보대원 노인 입원노숙환자들의 질병 특성	신성례
		장은수	보대원 중앙 항암화학요법 노인암환자의 인지기능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소화기암 대상)	오복자
	논문 계획서 발표 (6/1)	김숙경	일대원 석사 혈관접근로 기능부전이 있는 혈액투석환자의 혈관접근 시술 중 음악요법이 불안과 통증에 미치는 효과	정현철
		송은정	일대원 석사 일터영성과 업무성과의 관계에서 직무만족과 직무열의의 매개효과(검증)	고명숙
		임영숙	일대원 석사 PA로 활동하는 남자 간호사의 직업 정체성 경험	강경아
지은주	일대원 석사 임상간호사의 경력몰입과 조직몰입, 전문직업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명숙		

학기	이름	과정	논문	지도교수
2학기	논문 계획서 발표 (9/28)	염계정	일대원 박사 임신전 건강증진행위 도구개발 및 타당화	김일옥
		권기연	일대원 석사 간호사의 간호일터영성이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오복자
		박순희	일대원 석사 암생존자의 외상후 성장과 건강증진 행위: 영적 안녕의 매개효과	오복자
		임수연	보대원 중앙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말초신경증과 삶의 질: 수면장애의 매개효과	오복자
	논문 계획서 발표 (11/16)	임영숙	일대원 석사 PA 남자간호사의 직업정체성: 혼합적 연구 적용	강경아
		김숙경	일대원 석사 혈액투석환자의 혈관접근로 시술중 음악요법이 불안과 통증에 미치는 효과	정현철
송은정	일대원 석사 간호일터영성과 간호업무성과의 관계에서 직무만족과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고명숙		
여재현	보대원 석사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숙정		

05 동문회 소식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총동문회는 2015년 10월에 제 7대 동문회장(문혜숙)과 부회장 5명, 임원단을 선출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동문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2014년에는 개교 40주년을 맞아 동문들의 연락처를 파악하는 사업과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인 '삼육간호밴드'를 조직했고, 2016년 3월 15일에는 정기 산학협력기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선후배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도 동문 교수 승진

- **임현숙 (6회 졸업)** : 삼육서울병원 간호부장, 진료지원센터장
- **김효선 (27회 졸업)** : QI/심사본부 주임
- **우진희 (6회 졸업)** : 삼육서울병원 간호부부장
- **양진희 (23회 졸업)** : 응급의료센터 책임간호사
- **최은주 (9회 졸업)** : 삼육서울병원 외래처장, 부진료지원센터장
- **장윤자 (12회 졸업)** : 호흡기 내시경실 주임간호사
- **권혜경 (13회 졸업)** : 보건심사부 과장



동문회장님 인사말

존경하는 동문 선배 여러분,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저는 간호학과 7회 졸업생 동문회장 문혜숙입니다. 올해도 벌써 입동을 지나 녹음은 노랗고 빨간 옷을 갈아입고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 불에 뿌린 씨앗이 기쁨으로 추수단을 거두듯이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사람은 노후에도 자신의 인생을 의미있게 사는 것입니다. 불에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은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남을 돌아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8월에 12일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우회를 주축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400키로 떨어진 마다가스카르에서 고아들 400여명과 빈민촌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과 평생에 처음해보는 학생들을 데리고 운동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한 겨울에도 신발이 없어 맨발로 축구를 하는 아이들, 비취불과 풍선을 처음 본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봉사를 하러간 대원들은 오히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을 보고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문여러분! 올해도 한 달 반 정도를 남은 이때에 연초에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시 재정리하여 세월을 아껴서 더욱 의미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학교의 무궁한 발전이 있길 기도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총동문회장 **문혜숙**

06 발전기금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발전을 위한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자

동문(학부)

강수련, 김규은, 김슬지, 김은정, 김일옥, 김정혜, 김주연, 김주연, 김지현, 김태민, 김하영, 남이, 맹정호, 박유진, 박진희, 삼육서울병원동문, 안현진, 오원우, 윤민지, 이순열, 이슬기, 이현희, 이환희, 정가희, 조가영, 조현숙, 최범진, 최형지

재학생(학부)

강해민, 김소연, 김안진, 김여정, 김지은, 김현용, 김혜미, 김혜영, 남연주, 박정은, 서주영, 손새미, 신예림, 오예림, 오혜란, 이경연, 이선영, 이연주, 이연지, 정세라, 차승미, 한혜연, 한희연, 허성수, 홍예지

일반

박세현

약정자

동문(학부)

강민주, 강유진, 강한별, 권윤현, 김미진, 김수연, 김수연, 김슬기, 김시애, 김영민, 김은정, 김지은, 김정혜, 김하영, 김한솔, 김현지, 김혜경, 김혜연, 김혜인, 김혜진, 남이, 맹정호, 민영춘, 박민영, 박민우, 박유진, 박은주, 박종민, 박진주, 배가희, 백슬비, 서은재, 석지희, 손지예, 신성례, 안문영, 안수영, 안정은, 염경훈, 원지영, 원혜리, 유바른, 윤지현, 이나리, 이보라, 이슬아, 이윤주, 이지영, 이현정, 임보미, 장소영, 정가희, 정동민, 정재희, 정지원, 조장호, 조화영, 총배영, 최다예, 최도희, 최윤경, 최은혜, 표예진, 한상현, 함석영, 홍수지, 황은지

재학생(학부)

강해민, 김소연, 김안진, 김여정, 김유정, 김진슬, 김근별, 김현용, 남연주, 박정은, 박지민, 박진아, 서주영, 손새미, 신예림, 오예림, 오혜란, 이경연, 이선영, 이연주, 이연지, 이예영, 정세라, 정주리, 정채린, 조가영, 주소영, 차승미, 최희선, 허성수, 홍예지, 한혜연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발전기금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 교류 활동 및 교육시설개선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는 방문납부,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출현 방법

- **방문납부** 학교를 내방하여 기금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후배사랑, 학과사랑 밀알장학기금은 학교홈페이지(<http://www.syu.ac.kr>)에서 온라인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간호학과: 02-3399-1594 혹은 대외협력처: 02-3399-3806)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 **무통장 입금 및 자동이체** (간호학과 발전기금 통장)
우리는행 1005-001-901381 (예금주: 삼육대학교)
우리는행 1005-002-145007 (예금주: 삼육대학교)

문의처) 간호학과 02-3399-1593 대외협력처 02-3399-1004

Sahmyook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News

07 학과 사무실

삼육대학교 제3과학관 201호에 위치한 간호학과 사무실은 간호학과 학부/RN-BSN과정/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박사과정/보건복지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과(중양, 노인)과정의 전반적인 행정 및 운영보조를 담당하고 있다. 매 학기 각 과정의 수업과 실습의 전반적인 교과과정의 진행을 돕고 있으며, 대학생활 그리고 졸업을 위해 여러 가지 도움과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간호학과 사무실에는 학부 및 간호학과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임영숙 조교(84학번, 현 본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중)와 RN-BSN과 대학원 업무를 담당하는 이지혜 조교(97학번, 2001년도 졸업생)가 근무하고 있다.

학과사무실 정보



- **운영시간**
 <학기중> 월-목 09:00~17:30 / 금 09:00~15:00
 <방학중> 월-목 09:00~17:00 / 금 09:00~15:00
- **연락처** 02-3399-1593 ● **FAX** 02-3399-1594
- **연락처** nursing@syu.ac.kr

인턴십 인터뷰

서울아산병원 인턴십에 수료하신 **4학년 한지수 선배님**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배님이 인턴십을 지원하신 동기, 느낀점 그리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쭙어보았다.



1.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선배들한테 먼저 들었을 때, 아산병원은 인턴십을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아산병원에 지원을 할 때 1차 면접을 건너뛰고 2차 면접을 본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 있게 들렸어요. 그리고 저희 집 동네에 아산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입원한 적도 있고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많이 다니는 병원이라서 익숙했어요. 저한테 아산 병원은 익숙하면서도 좋은 병원이었고, 어느 병원이든 힘이 들 텐데 큰 병원부터 경험해보고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인턴십을 통해서 그 병원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죠.

2. 인턴십을 수료하신 후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일단 좋았어요. 거기 모인 학생들이 모두 자기가 원해서 온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도 있고 적극적이었어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뭔가 나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설 던 것 같아요. 실습과 다른 점은 실습할 때는 아무래도 1주일마다 병원을 옮겨가면서 실습하다보니 과제 하기에 바빴는데, 인턴십 때는 과제 걱정은 안 해도 돼서 좋았어요. 보통 1대1로 프리셉터 선생님을 지정해줘서 따라다니는데 실습이 아니라 인턴십으로 왔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들이 신규 간호사를 알려주듯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병원 자체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줘서 감동이었죠. 그래서 온전히 선생님들이 일 하시는 거에 집중하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한다면'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1주일이라서 '이 병원과 내가 정말 맞나?'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고 고민 없이 취업 때 지원까지 했죠.

3.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3학년 때 제가 처음에 실습을 시작할 때 친한 선배가 해준 말이 있어요. "나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았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실습하면서 나와 안 맞는 병원과 안 맞는 부서라도 생각하면서 실습을 다녀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실습 때 힘들고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 부서가 나와 맞는지는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고 싶은 병원도 몇 개 보이고 가고 싶은 부서도 좀 추려졌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목표가 뚜렷한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은 아무생각도, 목표도 없는 것 같아 움츠러드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저런 생각을 가지고라도 실습을 했으면 해요. 1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학생으로서 가장 앞에 보이는 건 취업이니까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각자 가고 싶은 병원이나 일터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